

2020년 1분기 창원시 고용동향

2020. 4

창원상공회의소

I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조사방법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 -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.
 - 고용보험DB 법적근거
 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 -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 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‘상용’, ‘계약직’인 근로자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 -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 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 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 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3. 조사기간

- 2020년 4월 17일 ~ 4월 21일

4. 조사사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)
-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(규모별, 업종별)

II. 요약 및 시사점

- ◎ 2020년 1분기 창원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(이하 근로자) 수가 전년 동기 대비 0.7% 감소한 25만 1,418명을 기록했다. 창원지역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를 보인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임.
- ◎ 창원지역 근로자 수가 증가해온 것은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분을 상쇄해왔기 때문임. 하지만, 이번 분기는 제조업(-0.9%)과 서비스업(-0.3%) 근로자 수가 함께 감소했음.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과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증대로 꾸준히 증가해온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를 보인 것은 관련 통계가 이루어진(2000년) 이후 처음임.
- ◎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원지역의 고용쇼크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,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 퇴직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안정지원책이 상당부분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임. 실제로 1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원은 전년 대비 91.2% 증가했음. 특히 내수 중심의 비제조업의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72.1% 증가해, 58.0% 증가한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.
주목할 점은 국내 고용보험 가입률이 50%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, 국내 근로자의 절반 정도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근로자는 영세성으로 미루어볼 때 고용위기에 더욱 크게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.
- 사업장 규모별로 '10인 미만'과 '300인 이상'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6.3%, 1.4% 증가했지만, '10인 이상 100인 미만'과 '100인 이상 300인 미만' 사업장 근로자 수는 각각 4.3%, 6.2% 감소했음.
- 제조업 업종별로는 '전기장비'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3.4%로 크게 증가했지만, 비중이 가장 높은 '기계 및 장비'(-4.0%)와 '자동차 및 트레일러'(-6.8%)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해 전체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를 보임.
- 서비스업 업종별로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'(+6.1%), '도·소매업'(+0.8%), '숙박·음식점'(+7.8%) 등 기존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어온 업종들이 증가세를 이어갔음에도, '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보장·행정'서비스업의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41.7%로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근로자 수 감소를 보임.

Ⅲ. 창원시 고용동향

1. 창원시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현황

- 2020년 1분기 말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¹⁾에 가입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25만 1,418명임.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1,692명(-0.7%), 지난 분기 대비 1,867명(-0.7%) 감소한 수입.
- 규모별로 '300인 이상 사업장' 근로자 수가 1.4% 증가한 5만 9,962명, '10인 미만 사업장' 근로자 수도 6.3% 증가한 6만 5,262명임. 반면 '10인 이상 100인 미만'은 4.3% 감소한 9만 2,469명, '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'은 6.2% 감소한 3만 3,725명을 기록했음.

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'18. 1Q	'19				'20. 1Q
		1Q	2Q	3Q	4Q	
전 체	245,764 (0.8%)	253,110 (3.0%)	251,730 (2.0%)	251,599 (1.2%)	253,285 (0.2%)	251,418 (-0.7%)
10인 미만	60,477 (4.0%)	61,386 (1.5%)	62,398 (2.5%)	63,804 (2.3%)	64,984 (1.4%)	65,262 (6.3%)
10인 이상 100인 미만	92,446 (0.0%)	96,622 (4.5%)	93,604 (0.0%)	93,056 (-0.6%)	92,857 (-3.2%)	92,469 (-4.3%)
100인 이상 300인 미만	34,051 (0.7%)	35,965 (5.6%)	33,793 (0.7%)	33,487 (-2.0%)	33,184 (-2.2%)	33,725 (-6.2%)
300인 이상	58,790 (-1.1%)	59,137 (0.6%)	61,935 (5.3%)	61,252 (4.9%)	62,260 (5.9%)	59,962 (1.4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1)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고용보험법 제8조, 10조 및 령 제2조, 제3조)

-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(단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-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.
-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-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- 외국인근로자(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,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

2.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

- 제조업, 서비스업, 건설업 등 주요 업종(대분류)의 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했음.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.9% 감소한 10만 9,125명,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0.3% 감소한 12만 9,077명임. 건설업 근로자 수는 3.9% 감소한 9,740명을 기록했다.
- 창원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어온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감소한 데 이어 제조업 근로자 수의 감소도 이어졌음.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과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증대로 꾸준히 증가해온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관련 통계가 발표된(2000년)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임.

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'18. 1Q	'19				'20. 1Q
		1Q	2Q	3Q	4Q	
전 체	245,764 (0.8%)	253,110 (3.0%)	251,730 (2.0%)	251,599 (1.2%)	253,285 (0.2%)	251,418 (-0.7%)
제조업	110,883 (-0.7%)	110,114 (-0.7%)	109,466 (-1.3%)	108,398 (-2.2%)	107,789 (-3.1%)	109,126 (-0.9%)
서비스업	121,222 (2.6%)	129,461 (6.8%)	129,012 (5.4%)	129,811 (4.6%)	132,045 (3.3%)	129,077 (-0.3%)
건설업	10,330 (-3.0%)	10,131 (-1.9%)	9,985 (-3.2%)	9,951 (-3.6%)	9,970 (-3.3%)	9,740 (-3.9%)
기타	3,329 (2.1%)	3,404 (2.3%)	3,267 (2.0%)	3,439 (1.4%)	3,481 (2.6%)	3,475 (2.1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-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'기계 및 장비'가 2만 9,745으로 가장 많았고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 1만 6,753명, '전기장비' 1만 5,842명, '1차 금속' 1만 803명, '기타 운송장비' 9,768명 순임.
- 제조업 중 '전기장비'+(23.4%), '의료·정밀·광학기기'+(3.0%), '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'+(0.05)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. 특히 '자동차 및 트레일러'(-6.8%), '1차 금속'(-5.6%), '기계 및 장비'(-4.0%) 등 근로자 수 비중이 큰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음.

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'18. 1Q	'19				'20. 1Q
		1Q	2Q	3Q	4Q	
제조업	110,883 (-0.7%)	110,114 (-0.7%)	109,466 (-1.3%)	108,398 (-2.2%)	107,789 (-3.1%)	109,126 (-0.9%)
기계 및 장비	31,501 (3.7%)	30,988 (-1.6%)	30,888 (-1.8%)	30,495 (-2.2%)	30,066 (-3.4%)	29,745 (-4.0%)
자동차 및 트레일러	18,527 (-3.2%)	17,968 (-3.0%)	17,691 (-3.7%)	17,570 (-4.1%)	17,433 (-5.2%)	16,753 (-6.8%)
전기장비	12,729 (1.4%)	12,843 (0.9%)	12,941 (2.5%)	12,642 (1.0%)	12,816 (0.7%)	15,842 (23.4%)
1차 금속	12,273 (-1.8%)	11,446 (-6.7%)	11,349 (-6.4%)	11,281 (-6.7%)	11,137 (-7.6%)	10,803 (-5.6%)
기타 운송장비	9,855 (-13.2%)	10,113 (2.6%)	10,016 (0.6%)	9,936 (-2.2%)	9,954 (-3.8%)	9,768 (-3.4%)
금속가공 제품 (기계·가구제외)	8,000 (-2.1%)	8,070 (0.9%)	8,014 (-0.5%)	7,941 (-2.8%)	7,927 (-1.9%)	7,851 (-2.7%)
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 등	6,134 (3.1%)	6,354 (3.6%)	6,397 (2.9%)	6,375 (1.6%)	6,314 (-0.2%)	6,357 (0.0%)
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등	3,319 (0.3%)	3,476 (4.7%)	3,445 (-1.3%)	3,452 (1.2%)	3,589 (5.4%)	3,579 (3.0%)
고무·플라스틱 제품	1,812 (-3.8%)	1,797 (-0.8%)	1,756 (-3.7%)	1,743 (-2.3%)	1,728 (-1.9%)	1,722 (-4.2%)
식료품	1,493 (-11.7%)	1,651 (10.6%)	1,634 (8.9%)	1,697 (7.7%)	1,683 (4.5%)	1,624 (-1.6%)
기타	5,240 (9.3%)	5,408 (3.2%)	5,335 (0.7%)	5,266 (-1.0%)	5,142 (-4.3%)	5,082 (-6.0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기타 제조업은 '가구', '가죽·가방 및 신발', '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', '비금속 광물제품', '섬유제품(의복제외)', '음료', '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', '의복·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', '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', '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'을 포함함.

-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'이 3만 3,852명으로 가장 많았고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' 1만 4,549명, '도매 및 소매업' 1만 4,479명, '전문, 과학 및 기술' 1만 2,221명, '운수 및 창고업' 1만 604명, '숙박 및 음식점업' 8,533명, '교육' 8,307명, '협회 및 단체·수리 및 기타 개인' 5,728명, '부동산' 5,474명이 뒤를 이었음.

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

(단위 : 명)

	'18. 1Q	'19				'20. 1Q
		1Q	2Q	3Q	4Q	
서비스업	121,222 (2.6%)	129,462 (6.8%)	129,013 (5.4%)	129,812 (4.6%)	132,046 (3.3%)	129,077 (-0.3%)
보건업 및 사회복지	29,526 (3.8%)	31,907 (8.1%)	32,807 (9.0%)	33,461 (8.2%)	33,758 (6.7%)	33,852 (6.1%)
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	16,547 (5.3%)	15,182 (-8.2%)	15,301 (-7.9%)	14,801 (-6.0%)	14,679 (-6.3%)	14,549 (-4.2%)
도매 및 소매업	14,216 (3.4%)	14,361 (1.0%)	14,762 (3.5%)	14,691 (2.3%)	14,671 (1.6%)	14,479 (0.8%)
전문, 과학 및 기술	11,115 (-5.0%)	11,635 (4.7%)	11,783 (4.5%)	11,880 (5.3%)	11,972 (5.4%)	12,221 (5.0%)
운수 및 창고업	10,600 (2.5%)	10,978 (3.6%)	11,003 (3.7%)	11,000 (2.7%)	10,903 (0.4%)	10,604 (-3.4%)
숙박 및 음식점업	7,131 (14.3%)	7,915 (11.0%)	8,205 (11.5%)	8,468 (13.7%)	8,797 (15.4%)	8,533 (7.8%)
교육	7,056 (1.4%)	7,787 (10.4%)	8,423 (12.6%)	8,482 (9.6%)	8,677 (6.1%)	8,307 (6.7%)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	5,645 (-5.9%)	5,842 (3.5%)	5,788 (1.7%)	5,745 (-1.1%)	5,675 (-2.4%)	5,728 (-2.0%)
부동산업	4,941 (1.8%)	5,139 (4.0%)	5,173 (0.9%)	5,464 (2.5%)	5,401 (4.9%)	5,474 (6.5%)
금융 및 보험업	5,168 (-0.4%)	5,164 (-0.1%)	5,176 (0.7%)	5,179 (0.9%)	5,174 (0.6%)	5,126 (-0.7%)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4,890 (11.1%)	8,782 (79.6%)	5,540 (28.6%)	5,307 (3.8%)	6,978 (-3.2%)	5,122 (-41.7%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	2,060 (-12.3%)	2,357 (14.4%)	2,521 (19.8%)	2,764 (33.9%)	2,762 (21.7%)	2,551 (8.2%)
정보통신업	2,327 (3.7%)	2,412 (3.7%)	2,530 (6.8%)	2,569 (8.0%)	2,598 (6.7%)	2,531 (4.9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3.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(취업)·상실(퇴직) 현황

- 노동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2020년 1분기 3만 3,6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.5% 줄었고, 퇴직자는 3만 8,243명으로 0.8% 감소했음.
취업자 중 경력취업자는 13.3% 감소한 2만 9,574명, 신규취업자는 22.2% 줄은 4,052명으로 신규·경력 취업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임.

취업 및 퇴직자 수

(단위 : 명)

	'18. 1Q	'19				'20. 1Q
		1Q	2Q	3Q	4Q	
취업자	35,461 (5.5%)	39,310 (10.9%)	27,329 (-9.4%)	26,740 (-4.0%)	27,392 (-3.3%)	33,626 (-14.5%)
신규취업자	4,172 (6.7%)	5,207 (24.8%)	3,038 (3.7%)	3,192 (-5.9%)	3,068 (-12.1%)	4,052 (-22.2%)
경력취업자	31,289 (5.3%)	34,103 (9.0%)	24,291 (-10.8%)	23,548 (-3.7%)	24,324 (-2.1%)	29,574 (-13.3%)
퇴직자	35,379 (8.7%)	38,534 (8.9%)	27,979 (-2.6%)	26,422 (1.7%)	25,006 (4.4%)	38,243 (-0.8%)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- 1분기 퇴직 사유별로 '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'가 1만 7,229명으로 45.1%, '계약만료, 공사종료' 1만 1,829명(30.9%), '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' 5,201명(13.6%), '폐업, 도산' 1,653명(4.3%) 순으로 나타났음.

2020년 1분기 사유별 퇴직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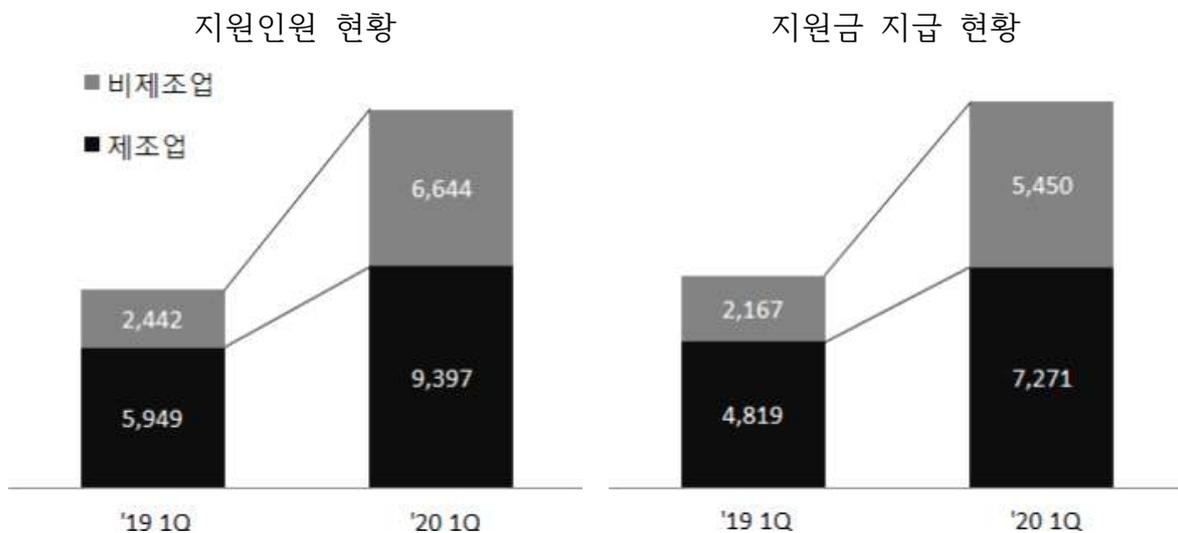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퇴직 사유	퇴직자수	비중
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	17,229	45.1%
계약만료, 공사종료	11,829	30.9%
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	5,201	13.6%
폐업, 도산	1,653	4.3%
정년	1,062	2.8%
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	493	1.3%
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	444	1.2%
기타	332	0.9%
계	38,243	100.0%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및 수출수요 감소, 부품수급과 생산차질 등으로 고용쇼크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,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 퇴직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 이는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안정지원책이 상당부분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임.
- 1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, 지원금 지급인원은 1만 6,0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.2% 증가했고, 지원금 또한 127억 2천만 원으로 82.1% 늘었음.
- 지원금 수급은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이 더욱 크게 증가했음. 지급인원의 경우 제조업은 전년 대비 58.0% 증가했고, 비제조업은 172.1% 늘었음. 지급액의 경우에도 제조업은 50.9%, 비제조업은 151.5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,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쇼크 위협은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풀이됨.

2020년 1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

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해당 월에 지급된 고용안전지원금 지급건수로 동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여러 번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된 경우 여러 건으로 계산